

## 연구 논문

한말 일본군의 의병 진압과  
의병 전술의 변화 과정\*

홍 순 권\*\*

- |                          |                     |
|--------------------------|---------------------|
| 1. 머리말                   | 3. 의병의 대응 전술과 변화 과정 |
| 2.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과<br>의병 진압 | 4. 맺음말              |

## 1. 머리말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가 발단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과 반인륜적 만행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이른바 ‘을미의병’으로 불리는 이들의 항쟁은 1896년 2월 아관파천을 계기로 점차 약화되어 그 해 말 일단 막을 내렸으나,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이 다시 국권침탈을 감행해오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다. 전기의병과 구분하여 1904년 이후의 의병은 재기, 고조기 등으로 구분하거나, 의병들이 봉기한 해를 기준으로 삼아 을사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의병, 병오의병, 정미의병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1907년 8월 군대해산을 전후로 중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단히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sup>1)</sup> 1904년 재기한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전기와는 달리 단절 없이 국내에서만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한말의 의병운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말 의병운동의 전 기간 중에서도 일본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져 많은 의병 희생자가 발생한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의 후기의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 일본군에 의한 집중적인 의병 학살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는 주로 의병항쟁의 내적 계기와 의병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항일투쟁으로서 의병활동과 연동된 일본군의 군사행동과 그 과정에서 행해진 의병 탄압과 학살의 만행에 대해서 또는 이에 대한 의병들의 전술적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sup>2)</sup>

1) 한말 의병운동사의 시기구분법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초기, 재기, 고조기, 전환기 등의 시기구분은 강제인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차용하는 방법이고, 홍영기 등 일부 국내 연구자들은 단순히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박성수는 1895년 이후를 제1차 의병전쟁, 1907년 군대해산 이후를 제2차 의병전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04년 이후 의병항쟁의 연속성과 이에 대응한 일본군대의 '한국 주차군' 설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의병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기의 병과 후기의병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강제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등 참조. 또 이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논의는 홍순권, 『한말 호남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를 참조할 것.

2) 근래 발표된 일본군의 의병 학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 군·헌병·경찰의 탄압작전」, 『역사교육』 87, 2003;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제노사이드 연구』 3, 2008;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2009; 권영배, 「대한제국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의병 탄압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제19집, 2010; 홍순권, 「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군사연구』 131, 2011; 김상기, 「제14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도 지금까지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일본군의 의병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러일전쟁 이후 일본 군대의 의병 진압과 이에 대응한 의병세력의 전술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의병 연구자들이 활용해왔던 일본 측 자료 외에 일본 방위성방위연구소 소장의 『千代田史料』에 포함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보고 문건,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이하 『진중일지』로 약칭함) 등 일본군 측 자료와 호남의병장 전해산이 기록한 『전해산진중일기』를 상호 비교 분석하려 한다.<sup>3)</sup>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일본군과 의병 양측의 군사 행동과 전술적 변화 과정을 상호 연관시켜 이해함으로써 일제시기 항일무장투쟁의 전사로서 의병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의 의의를 재음미해 보려 한다.<sup>4)</sup>

---

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이 가운데 본고와 관련성이 깊은 신주백의 연구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동감을 하면서도, 몇 가지 이견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 3)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의 『千代田史料』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전후의 上奏 서류를 묶은 것인데, 이 중 일부를 1997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폭도토벌개황』이라는 假題로 편집하였다. 『폭도토벌개황』은 한국주차군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인 한국주차헌병대, 임시한국과견대사령부 등이 1907년 8월 이후 ‘폭도 토벌’의 개황과 성과를 종합보고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주백의 앞 논문에서도 이미 인용된 바 있다. 『歩兵第14聯隊陣中日誌』는 1907년 7월 한반도에 증파되어 1909년 5월까지 ‘폭도 토벌’의 임무를 수행한 일본군 보병 제14연대가 작성한 전투일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에서 발굴하여 2010년 간행한 것으로 김상기 교수의 해제가 붙어 있다. 전자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일본군의 ‘의병 토벌 작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보병 제14연대의 작전 구역인 영·호남 지역에서의 일본군의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병 제14연대가 병력을 집중한 지리산과 호남지역의 의병 진압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여 호남의병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전해산진중일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1974 所收)는 호남지역 의병장 전해산의 의병 활동 일기로 1908년 9월부터 1909년 4월의 기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기타 일본 측 자료로는 조선주차군사령부편, 『朝鮮暴徒討伐誌』(1913)를 비롯하여 통감부 경무국 편, 『暴徒史編輯資料』(1909), 조선총독부 내부 경무국에서 편집한 『暴徒に關する編冊』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 2.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과 의병 진압

### 1) 군대 해산 이전 일본군의 의병 진압 실태

의병 학살에 앞서 일본은 ‘폭도 토벌’을 명분으로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수많은 농민군을 학살하였다.<sup>5)</sup> 또 청일전쟁이 종료되고 나서도 일본은 후비대를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대신 거류민 보호와 군용전선의 엄호를 명분으로 임시헌병대와 보병 1개 대대를 서울을 비롯하여 용산, 부산, 인천, 임진진, 원산 등 개항장과 조선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다.<sup>6)</sup>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일본군은 애당초 의병의 봉기와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진압을 목적으로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병들이 무장봉기하면서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공격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기의병 활동 시기 일본군 수비

4) 이 점과 관련하여 慎蒼宇는 최근의 논문에서 해산군인의 의병 참여의 의의를 기술적·전술적 부분 이외에 사상적 측면에서 내셔널리즘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金鳳基와 延起羽의 의병활동을 사례로 들어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논제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 慎蒼宇, 「韓國軍人の抗日蜂起と‘韓國併合’」, 『‘韓國併合’100年を問う』, 岩波書店, 2011 참조.

5)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具良根, 「東學農民軍の戦闘過程の検討-第二次蜂起と日本軍との交戦を中心に」, 『學術論文』 5, 1975와 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 青木書店, 1982 등의 선구적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의 주요 연구 성과를 지적하면 다음의 것들이 있다.

姜孝叔, 「第2次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762호, 2002;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 『역사와 현실』 54, 200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군사』 53호, 2004;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일본군의 생포농민군 처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30호, 2007;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서울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연구』 52, 2007; 강효숙,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2008.

6) 金正明編, 『朝鮮駐劄軍歷史』, 1967, 4-5쪽 참조.

대와 전투를 벌인 의병부대는 제천의병을 비롯하여 안동의병, 강릉의병 등을 꼽을 수 있다.<sup>7)</sup>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의병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적잖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자료로 확인된 전기의병으로서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인원은 대략 3백여 명이며,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sup>8)</sup>

그러나 전기의병과 일본군간의 충돌은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의 지속적인 ‘토벌’과 수색으로 의병 대량학살이 발생했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전기의병을 진압하려 나선 것은 일본군만이 아닌 관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보면 의병을 진압한 주력군은 오히려 관군이였다. 1896년 2월 충주성을 점령한 제천의병 세력이 가흥과 수안보의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했을 때도 그들은 일본군만 아니라 관군도 함께 상대해야 했다.<sup>9)</sup> 이처럼 전기의병 활동 시기에도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의병부대간의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또 한편으로 전기의병세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시위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것과는 달리 러일전쟁 전후로 재기한 의병세력은 초기부터 군사집단의 성격이 강했다. 그 배경으로는 광무연간의 농민무장대가 의병으로 전환해 간 것과 러일전쟁 이후 대규모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과 동시에 군사침략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전개된 점을 들 수 있다.<sup>10)</sup>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은 1903년 12월 ‘한국주차대’ 사령

7) 이와 관한 문제는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8)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93쪽.

9)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196~203쪽 참조.

10) 이에 관해서는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1, 1986 참조.

부를 서울에 설치한 데 이어, 1904년 2월에 이르러 제12사단으로부터 보병 4개 대대를 임시파견대로 편성하여 서울에 파견하고, 이를 작전 근거지로 삼았다. 이처럼 러일전쟁은 먼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침략이 감행된 뒤에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 러·일 간의 전장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1904년 3월 들어 서울, 부산, 원산에 주둔한 보병 제38연대 제3대대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3월 10일 ‘한국주차군’ 사령부와 그 예속부대의 편성 명령을 하달하였다. ‘한국주차군’의 편성은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이른바 ‘한일의정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후 ‘한국주차군’ 소속의 일본군은 한편으로는 러시아군과의 충돌에 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항일세력에 대한 무력진압에 동원되었다.<sup>11)</sup>

이제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 상황과 그들의 동태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1904년 4월 ‘한국주차군’이 편성된 이후 일본군대의 한반도 주둔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상황을 정리하면 <표 1>·<표 2>와 같다.

<표 1> 러일전쟁 이후 ‘한국주차군’ 수비대의 병력 이동 및 부대 편성

시기	병력이동 및 부대편성의 변동 상황	주둔지(사령부) 및 소속 부대명	총 병력 규모	비고
1904.4.3	한국주차군의 서울 도착과 수비지 주둔	서울: 후비보병 제14연대 제2대대, 동 제24연대, 동 제48연대 제1대대, 후비보병 제47연대 제1대대(서울-평양 병참수비)	보병 1개 연대+4개 대대+2개 중대 =약 4,272명	*한국주차군은 주차수비대, 주차헌병대, 기타 주차사령부 예하부대 등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사령부

11) 김정명 편, 『朝鮮駐劄軍歷史』, 83~127쪽 참조.

한말 일본군의 의병 진압과 의병 전술의 변화 과정 11

		부산: 후비보병 제45연대 제2중대 울산: 후비보병 제45연대 제4중대, 보병 제37연대 제3대대		예하부대는 한국주차병참감부, 임시군용철도감부, 한국주차전신대, 한국주차병원 등이 있었다.
1905.10 이후	'3개 지역수비대' 체제로 개편	동부수비대: 13사단(관할: 함경도) 북부수비대: 15사단(관할: 황해도, 평안도) 남부수비대: 보병 제30여단, 기병 제19연대, 야전포병 제21연대 1대대(관할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편제.	보병 2개 사단+포병 1개 대대	제15사단의 제30여단=보병제59연대+보병제60연대
1907.3	'만한주차부대 파견요령'(1907.2. 6) 발표 후 제15사단 본국 소환	주차사단= 제13사단의 편성 (1)남부 경비관구(서울): 사단사령부, 51연대, 기병 17연대, 야전포병 19연대 2중대 (2) 서부 경비관구(평양): 26여단 사령부, 52연대 (3) 중부 경비관구(북청·함흥): 50연대, 기병 17연대, 야전포병 19연대, 공병, 치중병 (4) 동부 경비관구(경성·회령): 25여단사령부, 49연대, 공병	제13사단(주차사단)+제14헌병대+주차 육군군악대+진해만 요새사령부 및 동 요새포병대대+영흥만 요새사령부+군마보충부 평양지주+용산 육군병기창+주차위수병원+주차육참고+용산 위수감옥	남부 경비관구 부대 배치처: 회현, 김화, 춘천, 인천, 포천, 충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1907.7.24	제1차 증파: 제12여단 증파	제12여단은 서울 이남, 제13사단은 서울 이북의 수비에 입함	1개 주차사단 (제13사단)+1개 여단(임시파견대	기존 주차군과 함께 철도 경비, 의병 및 해산군

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 제14연대+ 제47연대)	토벌을 행함.
1907.9 초	제2차 증파: 임시파견기병대 증파	배치처: 서울, 조치원, 대구, 전주	13사단+12여단 +임시파견기병 대	강릉과 인천에 수뢰정 파견
1907.12	'2개 지역수비관구 11개 수비구' 체제로 개편	북부수비관구: 보병제25여단(제49연 대+제50연대?), 보병제52연대(평양), 보병제47연대 2대대(개성), 기병제17연대 외 임시파견 기병, 차중병, 야전포병 등 남부수비관구: 제12여단(제47연대+ 제14연대) 외 임시파견기병 본부 및 2개 중대	상동	
1908.5.7	제3차 증파: 보병 제23연대, 보병제27연대	제13사단장의 구처 하에 아래 각 지역을 수비 제23연대: 충남북, 경기, 강원도 제27연대: 황해, 평안도	1개사단+ 1개 여단+ 2개 연대+기병대	의병토벌 목적 파견
1908.9 이후	제13사단과 제6사단 교대	주차사단 교체		1908.9.11 교대 명령, 동년 11.7 교대 완료.
1909.5.29	제4차 증파: 임시파견대 사령부 및 2개연대	임시파견대: 제1연대+제2연대		호남의 '남한대토벌작전' 을 위해 특파
1909.5.29~1 909.9.1	제12여단, 임시파견기병대, 제27연대(7사단) 본국 철수			임시파견대와 교대
1909.8		• 북부경비관구(사령 부=서울): 6사단(제13연대,	1개 사단+ 3개 연대	북부경비관구 부대배치처: 서울, 평양, 북청,



		36연대, 64연대, 45연대?) 23연대 남부경비관구(사령부= 대구)		회령, 함흥, 원산, 개성, 황주, 안주, 김화, 충주 남부경비관구부 대배치처: 대구, 남원, 광주, 대전, 전주, 안동
1909.9.1		6사단+23연대+임시파 견대	1개 사단+ 3개 연대	
1910.2 이후	제6사단과 제2사단 교대	주차사단 교체		1910.2.16 교대 명령, 동년 5.13 완료

\* 자료: 김정명편, 『조선주차군역사』, 33~42쪽에 의거하여 작성함.

〈표 2〉 러일전쟁 이후 '한국주차군' 헌병대의 병력 이동 및 부대 편성

연월일	병력이동 및 부대편성	부대 배치처	총병력수	비고
1904.3.11	주차군 예하 부대로서 '한국주차헌병대' 편성 명령		소좌 이하 위관급 포함 총329명	
1904.7.20	함경도 일원 군정 시행 및 서울 및 부근 일원 헌병치안경찰제 실시			헌병경찰제의 실시
1905.10.16	러일강화조약의 발효 → 분대 및 분견소 설치	분대: 서울, 부산, 원산, 인천, 의주, 평양, 안주, 개성, 임명, 수성, 전주, 대구 분대 휘하에 56개소의 헌병분견소 설치		
1906.3 말	육군대신 통달 「제한주차각부대 요원정리의 건」	일부 헌병대 요원 해산, 분견소 32개소로 축소	184명 해산	
1906.10.29	주차군헌병대를 '제14헌병대'로	제14헌병대(본부: 서울) 제1분대: 서울(분견소:		

14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개편	<p>인천, 개성, 춘천)                  제2분대: 전주(분견소: 대전, 목포, 군산)                  제3분대: 대구(분견소: 마산, 부산)                  제4분대: 평양(분견소: 황주, 진남포)                  제5분대: 정주(분견소: 영변, 신의주)                  제6분대: 함흥(분견소: 장진, 성진, 혜산진)                  제7분대: 경성(분견소: 청진, 회령, 웅기)</p>		
1907.10.7	제14헌병대를 '주차군 헌병대'로 환원	<p>본부: 서울                  분대: 서울, 천안, 영산포, 평양, 함흥, 부산, 용정촌                  분견소: 460여개(07년 말 현재)</p>	장교 이하 2,400명(07년 말)	
1908.3	부산헌병분대를 폐지하고 대신 대구헌병분대를 신설함.			
1908.9 이후	칙령 제31호로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 공포(08.6.11)	<p>조선에 6개 분대, 39관구하에 441개 분견소와 9개 파견소: 간도에 1개 분대, 10개분견소 배치</p>	<p>08년 7월~9월 헌병보조원 채용 완료. 헌병 장교 이하 2,347명, 헌병보조원 4,234명(08년 말)                  헌병 1인당 2~3명씩 배치</p>	헌병보조원은 군속 신분
1909.1	부대편성 조정	<p>51개 관구, 452개 분견소, 13개 파견소로 조정</p>		
1909.4	임시파견소 증설	<p>천안·영산포분대 아래 임시파견소 45개 증설</p>		의병토벌 관련

1909.5-6	상동	서울·영산포·평양·함흥분대 아래 입시파견소 14개 증설		
1909.7	상동	간도분대 밑에 6개 입시파견소 증설		
1909.11.1	통감부간도출장소 폐지, 나남에 경성분대 신설	좌동		
1910.3		조선내 7개분대 57관구 457분견소 4출장소	장교 이하 2,360명+헌병보 조원 4,392명	
10.6.24	경시청 폐지, 경무총감부 설치	헌병대본부는 '주차군 헌병사령부'로 개칭		헌병대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
1910.9.10	칙령 제343호 「조선주차헌병조 례」 공포			헌병경찰제의 법제화

\* 자료: 김정명편, 『조선주차군역사』에 의거하여 작성함.

〈표 1〉·〈표 2〉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한국주차군’ 창설 이후 한반도 주둔의 일본군 배치 상황과 의병항쟁의 변화 사이의 상관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주둔의 일본군 수비대 병력은 러일전쟁 직후 창설된 ‘한국주차군’(이하 주차군으로 약칭)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주둔군을 2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였다가 1907년 3월 이후 1개 주차사단으로 주차군 규모를 축소하였다. 당시 주차군의 주된 임무는 가상의 적 러시아군의 견제였으므로, 이러한 군사력의 변동은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의 주차군 배치 또한 한반도 북부를 위주로 하였으며, 의병 진압은 주차군의 주된 임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7년 7월 하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군인 및 의병의 저항을 진압할 목적으로 본국으로부터 1개 여단 병력을 증파하였다. 이 때 증파된 일본군 보병 제12여단은 당시 의병 활동의 중심지인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서 해산군 및 의병 진압에 종사하였다. 대체로 이때부터 1910년 강제병합 직후까지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한국주차군’ 병력은 1.5개 사단(1개 사단과 1여단)의 규모를 유지하였다.

또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은 의병 진압에 헌병대 병력을 크게 활용하였다. 러·일 강화 조약 이후 일본군은 한반도 주둔의 헌병대 병력을 줄이면서 ‘주차군 헌병대’를 ‘제14헌병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군대해산 직후인 1907년 10월 다시 ‘주차군 헌병대’로 환원시켰다. 그리고 헌병대 병력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각지에 분견소와 파견소를 확대하였다. 또 헌병 병력 증강과 궤를 같이 하여 헌병보조원제도를 만들어 4,400명에 가까운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의병 탄압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헌병 및 보조원 병력의 확대 과정을 통해서 종전 수비대가 맡았던 ‘의병 토벌’ 및 수색 임무가 점차 헌병대 쪽으로 옮겨져 갔다.<sup>12)</sup>

일본군 보병 제14연대 이외에 영·호남지역에서 의병 진압에 종사한 일본군대로 ‘진해만 요새 사령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부대는 1905년 4월 29일 우수 제4사단으로부터 편성되어 5월 7일 외양포(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소재)에 상륙하였다. 이 부대는 1907년 2월 5일 2개 중대 편제인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로 개칭 보강되었다. 이는 의병 토벌을 위한 병력 증강이었는데, 1907년 7~11월 기간 동

<sup>12)</sup> 이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참조. 또 수비대와 헌병대의 각 역할에 보다 깊은 논의는 松田利彦, 「朝鮮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警察機構(1904~1910)」,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1993; 이승희,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치안 구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등 참조.

안 경상남도 각지에 임시 병력을 파견하였다.<sup>13)</sup> 이 역시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인과 의병의 저항에 대비한 조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 ‘한국주차군’이 처음부터 의병세력의 진압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 물론 러일전쟁 기간 중 일본은 조선 북부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조선인의 반일 행동을 군사적으로 탄압하였으나, 그 외 지역의 의병 활동에 대한 진압은 여전히 조선정부의 관군이 주축이 되었다.<sup>14)</sup>

러일전쟁 이후 한국주차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의병 진압에 나선 것은 1906년 5월 충청남도 홍주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홍주성을 점령했을 때의 일이다. 홍주의병은 ‘을사늑약’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의병 봉기였으며, 이들이 홍주성을 점령하자 관군은 여러 차례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일본군은 기관총 2정을 갖춘 제15사단 관할의 남부수비대 제60연대의 보병 2개 중대, 포병(야전포병 제19연대 제2중대)과 기병(제17연대 제3중대)을 비롯하여 전주수비대 1개 소대 병력 등을 동원하여 의병 진압에 나섰다. 당시 일본 측은 수비대의 파견에 앞서 경찰과 헌병 병력 131명을 동원하였으며, 대한제국 정부도 공주와 청주의 진위대 병력 약 70여명을 파견하여 의병 진압에 협조하였다. 그 결과 의병들은 82명의 사망자를 내고, 145명이 포로로 잡혔다.<sup>15)</sup>

13)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 일월서각, 1988, 136쪽. 당시 파견 병력을 지역별로 보면, 마산포 70명(7.25~11.8), 통영 52명(7.27~9.13), 웅천 12명(7.28~7.31), 진주(제1차) 28명(8.24~11.2), 진주(제2차) 55명(10.9~11.2), 부산 58명(9.6~9.24) 등이다.

14) 실례로 관군에 의한 최익현 부대의 진압 과정은 홍순권, 『한말 호남의병운동사 연구』, 87~91쪽 참조. 이밖에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 항일의병투쟁의 주축을 이루었던 원주진위대도 군대해산 이전에는 1905년 8월 거의한 원용팔 의병부대의 진압군이였다. 왕현중, 「1907년 이후 원주 진위대의 의병 참여와 전술 변화」, 『역사교육』 96, 2005 참조.

15) 『朝鮮暴徒討伐誌』, 673~677쪽.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로는 김상기, 「한말 일제

민중식의 의병봉기에 이어 최익현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으나, 여전히 의병 진압의 주력은 정부군이었다. 『조선폭도토벌지』에 의하면, 1906년 6월 순창의 최익현 의병부대에 대해서는 남원과 전주의 한국 진위대가 진압하였고, 경북 평해 일대의 신돌석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대구 및 원주의 진위대 약 300명이 동원되었다.<sup>16)</sup> 이러한 정부군의 진압에 대해서 최익현 의병부대의 예에서처럼 의병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정부군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의병들의 의식 내부에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의병들은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기의 수집을 위해 관아와 지방 진위대를 공격하는 일은 빈번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이 정부군과 일본군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sup>17)</sup>

군대해산 이전 일제가 의병들의 항전을 수수방관만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지방의 경무고문지부와 분건소 또는 분파소의 일본 경찰을 중심으로 의병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진압 작전이 시행되었다. 광주경무고문지부는 최익현의 거의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감시와 수색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1907년 2월 남원의 박재홍이 70명의 의병을 이끌고 남원진위대와 우편취급소를 공격하자 일제는 남원분건소 보좌관 이하 4명을 출동시켜 이들과 교전케 하였다. 또 1907년 4월에는 경남 유생 이광선과 능주군 출신 양회일 등 1백여명의 의병들이 능주군 관아와 주재소를 습격한데 이어 화순의 군아

---

의 침략과 의병 학살」이 참조된다.

16) 『조선폭도토벌지』, 665쪽.

17) 이와 관련해서 왕현종의 논문 「1907년 이후 원주 진위대의 의병 참여와 전술 변화」가 주목된다. 이 논문에 의하면, 원주 진위대는 군대 해산 이전에 이미 의병의 제휴 세력으로 간주되어 원주지역에서 일어난 원용팔 의병장은 1905년 8월 봉기 당시부터 이들과의 제휴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와 분파소를 공격하고 퇴각하자, 광주경무고문지부에서는 이키(壺岐) 보좌관이 보조원 4명과 總巡 이하 7명을 이끌고 이들을 추적하여 전투를 벌였다.<sup>18)</sup>

## 2)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의 의병 진압

### (1) 경기도·강원도 일원 지역에서 '토벌 작전'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일제의 의병에 대한 진압 방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의병의 공격에 일본경찰 병력이 동원되거나 정부군이 주력이 된 의병 진압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하던 일본군 수비대가 '의병 토벌'의 주력군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본군의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의병 진압의 주력군이었던 대한제국 정규군의 강제 해산 당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해산군과의 결합으로 세력이 커진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병력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군은 해산군의 저항에 대비하여 이들을 즉각 진압할 목적으로 군대해산 직전 기존의 주차군 1개 사단에 더하여 보병 제12여단의 2개 연대(보병 제47연대와 보병 제14연대로 구성) 병력을 본국으로부터 증파하였다. 보병 제12여단이 한국에 증파되기 전 주차군의 대부분 병력은 주로 서울과 그 이북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주차군'의 주된 임무가 서울 지역 일본 공관의 경비와 대륙 진출을 예비한 러시아 중국 국경의 치안유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2여단의 파견은 오로지 해산군과 의병세력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1907년 8월 이후 해

<sup>18)</sup> 全羅南道 警務課 編, 『全南暴徒史』, 1913(이일룡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鬪爭史』, 1977) 21~23쪽.

산군 및 의병 진압의 주력군으로 활동하다가 1909년 5월 1개 여단 병력의 '임시한국파견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새로 파견된 '임시한국파견대'의 임무는 제47연대와 제14연대가 약 2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군사적 토벌'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하지 못한 호남의 병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이었다.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의 주요 공격목표는 해산군 및 이들과 결합한 의병세력이었다. 이 시기 일본군의 군사 행동은 3개의 소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제1기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부터 1908년 7월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해산군에 대한 무장해제와 '13도연합의군'의 서울공략 전후 이들에 대하여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 토벌'을 진행하였다.<sup>19)</sup> 제2기는 대략 1908년 8월부터 '남한대토벌' 직전인 1909년 8월까지로 이 시기에는 각 지역에 주둔한 수비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의병들에 대한 토벌과 수색을 되풀이하던 시기이다. 제3시기는 일본 본국에서 파견된 임시한국파견대의 증파 여단을 중심으로 '남한대토벌'을 실시하고 이후 잔여 의병세력의 색출 및 감시 활동에 주력하면서 헌병경찰제를 정착해 나가던 시기이다. 이 세 시기 중 제2기와 제3기는 호남지역이 의병항쟁의 거점으로서 역할 했던 시기이다.

제1기에는 '한국주차군'은 관할구역을 양분하여 한반도 북부지역은 주차사단인 일본군 제13사단이, 남부지역은 1907년 7월 파견된 일본군 보병 제12여단이 각각 수비를 맡고 의병에 대한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다.<sup>20)</sup> 이 시기에는 일본군은 흥범도·차도선 등이 활약했

<sup>19)</sup> 이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주차헌병대의 보고 문건인 「暴徒の近況」(국사편찬위원회의 '일본방위연구소' 소장 수집문서)에서는 "폭도가 가장 暴橫을 極한 것은 40년(1907) 10월부터 익년 41년(1908) 7월에 이르는 사이로 출몰 지방은 거의 한국 전도에 걸치고, 그 집단은 수백에서 천여 명으로 일컫는 바 있었지만, 동년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점차 쇠퇴의 경향을 보이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sup>20)</sup> 당시 제13사단은 관할 구역을 동부수비구와 서부수비구로 분할하여 각각 보병 제15



던 함경도 일대의 북부 국경지대<sup>21)</sup>와 해산군의 저항이 심했던 서울 인근 중부지역의 의병 진압에 중점을 두었다.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 직후 일본군 수비대의 첫 임무는 각 지방 진위대의 무기 회수와 함께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었다.<sup>22)</sup> 그러나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에서 진위대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저항에 나서자 일본군은 진위대의 강제 해산과 동시에 이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데에 대규모 군대 병력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일차적으로 원주진위대와 강화진위대 등에 소속되었던 해산 군인들의 무력을 봉쇄하는 데 군사작전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서 이들과 연계된 각 지역의 의병세력을 ‘토벌’하는데 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다. 특히 강원도 일원에서는 원주진위대의 해산군인이 중심이 된 민공호부대의 세력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들의 진압에 군사 역량을 집중하였다.<sup>23)</sup>

이 시기 일본군의 의병 진압에 관한 상세한 작전계획은 아직 발견

---

여단과 보병 제26여단을 배치하고 그 밖에 기병, 야포병, 공병 등 파견하였다. 한반도 남부지역에 파견된 제12여단은 대구에 사령부를 두었으며, 산하의 제47연대와 제14연대는 각각 대전과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자는 경기, 충청, 강원도 일원을 후자는 전라 및 경상도 일원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 21) 홍범도의 항일의병투쟁과 이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에 대해서는 신용하, 「홍범도의 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참조.
- 22)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의 진위대 해산과 무기 회수 과정을 상세히 다룬 논문은 찾기 힘들다. 단, 일본군 제14연대의 『진중일지』에는 서울 이남 남부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해 진행된 진위대 해산 및 무기 회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방 진위대의 강제 해산은 1907년 8월 1일 시작하여 8월 말경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진중일지』의 보고 문건에는 “진주, 함양 진위대 해산을 위해 파견할 하사 이하 15명은 명 23일 오전 6시 출발할 예정”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본 수비대에 의한 각 지방 군관아 무기고의 무기·화약의 회수 및 燒棄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 23) 이에 관해서는 왕현중, 「1907년 이후 원주 진위대의 의병 참여와 전술 변화」 외에 신용하, 「민공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서태원, 「대한제국기 원주진위대 연구」, 『호서사학』 37,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표 3〉 1907.11~12 도별 의병전투회수

월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11월		3		2	16	9	36	13		9		4	6	92
12월		3			11	16	27	12	8	7	4	13	6	107
계		6		2	27	25	63	25	8	16	4	17	12	199

\* 출처: 한국주차헌병대, 「暴徒の近況」 부표 제1호(국사편찬위원회의 ‘일본방위연구소’ 소장 수집문서)  
 \* 비교: 본표는 군사령부의 公報에 기초하여 헌병, 수비대, 경찰관의 적도 충돌회수를 掲上한 것이다.

〈표 4〉 1908.1~1908.12 도별 의병전투회수

월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1월		6	4		28	23	18	6	14	18	2	7	11	137
2월		11		2	24	20	12	4	4	21	5	12	13	128
3월		7	1	4	30	30	18	7	9	18	6	11	17	158
4월	1	10	5	5	40	25	33	12	16	22	12	19	28	228
5월		10	5	14	34	28	35	10	12	17	15	21	24	225
6월	1	23	7	13	22	31	35	12	12	25	13	11	19	224
7월	4	11	4	7	13	9	14	10	10	17	11	22	20	152
8월		11	6	11	12	6	9	3	12	7	14	13	19	123
9월	3	8	3	9	13	15	11	6	10	12	5	14	13	122
10월	3	11	1	20	19	12	12	3	9	4	6	10	19	129
11월		15	5	9	7	16	9	3	8	9		3	12	96
12월	1	8		1	18	16	14	2	2	3	4	5	21	95
계	13	131	41	95	260	231	220	78	118	173	93	148	216	1,817

\* 출처: 상동. \* 비교: 상동.

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일본군은 강원도와 서울 인근의 의병세력을 먼저 ‘토벌’하고, 나머지 잔여세력을 외곽으로 내몰아 고립화시키는 작전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군 작전 지역의 변화 과정은 의병항쟁의 거점 지역 변동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 3〉~〈표 5〉이다.<sup>24)</sup>

〈표 5〉 1909.1~1909.11 도별 의병전투회수

월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1월	1	4		6	13	12	4	2	5		1	9	16	73
2월		1		1	8	11	8	1	5	3	1	4	25	68
3월		2		2	7	23	14	3	1	8	3	12	37	112
4월				3	5	17	12	4	5	13	4	14	27	103
5월		4		1	6	5	11	2	6	9		20	26	90
6월					1	9	7	2	1	13	1	17	35	86
7월				1	3	3	7	6		14	2	7	35	78
8월		1			4	4	7	1		6	3	6	16	48
9월		3	1		6	7	10	1	1	12	1	9	15	66
10월		3			6	2	1	2	1	2		1	7	25
11월		1				10	3			8	1	2	5	30
계	1	19	1	14	59	103	84	24	25	88	16	101	244	779
총계	14	156	46	111	346	359	367	127	151	277	113	266	466	2,795

\* 출전: 상동. \* 비고: 상동.

24) 군대해산 이후 의병투쟁의 지역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박성수,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168~169쪽에 실린 아래의 통계가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통계는 각 지역별 상황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 아니어서 군대해산 이후 일본군의 군사 행동의 지역적 추이를 월별로 세밀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907년 12월~1909년 6월 각 도별 전투 의병 수(순위별) (단위: 명(%))

도별	1907.12~1908.12	도별	1909.2~1909.6
강원	18,599(22.5)	전남	17,579(45.6)
전남	10,544(12.7)	전북	5,576(14.5)
전북	9,960(12.0)	경기	3,667(9.5)
황해	7,998(9.7)	경북	3,453(9.0)
충남	7,666(9.2)	충남	2,468(6.4)
충북	6,815(8.0)	강원	2,148(5.5)
함남	6,438(7.8)	황해	1,003(2.5)
경북	5,702(6.9)	충북	934(2.4)
경남	3,328(4.0)	경남	832(2.2)
평북	2,590(3.1)	평남	540(1.4)
경기	1,453(1.8)	평북	270(0.7)

〈표 3〉에서 1907년 11월의 상황을 보면 총 92회의 전투 가운데 강원도가 36회로 가장 많고, 황해가 16회로 그 다음 순이다. 두 지역에서의 전투 회수만으로 전체의 과반이 훨씬 넘지만, 이 두 지역 다음으로 전투가 많았던 충북, 경기, 경북 등지가 강원도 인접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강원지역과 경기·황해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산군 중심의 의병부대가 일본군의 집중적인 ‘토벌’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1908년 4~6월 경 정점을 이루고 있다. 사실 1907년 11월부터 1908년 7월까지 일본군 수비대의 토벌공세로 중부지역에서의 전투 횟수가 많았던 시기에 일본군의 의병 학살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조선폭도토벌지』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일본군 수비대가 저지른 의병 학살은 매달 평균 1,000명을 상회하였다.<sup>25)</sup>

물론 이러한 의병 학살이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치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꾸며진 일본군의 기습 작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일본군 보병 제14연대의 『진중일지』 1907년 12월 16일자에 기록된 아래의 두 사례는 바로 그러한 실례를 보여준다.<sup>26)</sup>

평남	1,391(1.7)	함남	123(0.3)
함북	283(0.3)	함북	-
합계	82,767(100)	합계	38,593(100)

25) 『조선폭도토벌지』, 823~829쪽. 이에 의하면, 1908년 4월까지의 의병학살은 주로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헌병이 의병토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1908년 5월부터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일본군에 의한 의병 학살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1907년 11월부터 1908년 7월까지이다. 이 기간 중 1908년 2월을 제외하고 매월 의병 측 사망자가 1천명을 상회하였으며, 의병 측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1908년 3월 1,964명이다. 이때까지 의병 측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은 수비대에 의한 학살이다.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 군·헌병·경찰의 탄압작전」, 224쪽에서 본고의 〈표 3〉~〈표 5〉에 표시된 일본 측과 의병간의 충돌회수를 근거로 한국주차군의 탄압작전이 본격화한 것은 1908년 4월 이후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상세한 내용은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159쪽 등 참조.

〈사례 1〉: 12월 8일, 9일 鳥飼中隊 甌山 道士洞 전투보고

- ① 鳥飼中隊는 旌善(강원도: 필자) 동남방 약 10리 증산에서 약 250의 ‘暴徒’와 조우하여 全力을 전개하여 이들을 포위 공격함. 적 사체 72, 射耗彈 1180발.
- ② 중대는 그날 밤 증산에서 촌락 露營을 하고 밀정을 풀어 적의 소재를 수색케 하여 도사동(증산 북방 약 1리 반)에 집합하였다는 보고를 得하고, 야습 공격했으나 적은 야음을 틈타 부근 고지로 도주하여 날이 밝아 공격을 개시하여 潰亂시킴. 이곳 도사동은 적의 소굴로 목하 많은 부녀를 모아 피복을 재봉케 하고 있었으며, 포로의 말에 의하면 적의 병력 약 3백 가운데 백 명은 近頃 정선 방향으로부터 와서 합세한 자들로 永春(충북 단양군 내: 필자) 방향의 적도와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한다. 적 사체 131, 부상 또한 적지 않으나 부상, 수괴는 暗夜로 놓침. 사모탄 620발.

〈사례 2〉: 12월 9일 川村(특무조장)소대 黃葉峯 부근 전투

前日 이래 征矢野중대가 연락을 위해 田巨里(西碧里 북방 6리)에 파견한 川村소대는 12월 9일 오후 5시 황엽령 산록에서 賊魁 蔡가 率하는 약 백이삼십이 雪岩에 있음을 探知하고 (중략) 전진하여 오후 11시 50분 夕食中인 것을 夜襲하여 적괴 채 이하 31명을 죽이고, 潰亂시킴. 적 부상자 부상, 死50을 밀돌지 않을 것임. 적장 金成七을 生擒했으나 逃走를 기도해 사살함. 我측 손해 없고, 射耗彈 없음.

〈사례 1〉에서와 같이 군대해산 직후 해산군과 의병들은 수 백 명씩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하여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습 공격에는 밀정을 활용한 광범위한 ‘賊情’ 수집과 전신 등의 근대적 통신 수단, 철도 교통을 이용한 신속한 병력 이동 등이 뒷받침되었다. 이 시기 의병들에 의한 전신선과 철도 파괴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과 연관이 깊다고 할 것이다.<sup>27)</sup>

26) 『진중일지』 1907년 12월 16일자. 보병 제14연대가 작성한 진중일지의 전투 상황 기록은 매우 상세하여 그것을 전문 그대로 인용하기가 쉽지 않다. 본문의 사례 인용은 그 개요만을 정리한 것이다.

밀정의 정보를 활용한 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공격은 <사례 2>에 서처럼 의병들이 식사하고 있거나 취침하고 있을 때, 즉 의병들이 무장을 해제 상태에 있을 때 기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전투 보고에는 ‘射耗彈’이 없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일본군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칼로 찔러 의병을 학살하는 수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군대해산 직후 강원도와 경기도 인근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일본군의 ‘폭도 토벌’은 1908년 1월 이후 경북과 충남북 등지로 확대되었다. 또 <표 4>에서처럼 점차 전북과 전남 등 전라도 지역에서도 전투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08년 7월에 이르러서는 전라남북도가 전국에서 전투 횟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변화는 일본군의 해산군에 대한 ‘토벌’ 공세가 의병투쟁의 전국적 확산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일본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경기와 강원 일원에서 밀려난 해산군인들이 경북 지역 및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의병투쟁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제 해산군과 토착의병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의병투쟁은 장기전으로 전환하기

27) 의병들에 의한 철도 파괴나 전신선 절단 등의 활동은 의병전쟁 전 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특히 군대해산 직후 매우 빈번하였다. 『진중일지』에도 이에 관한 보고가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군대해산 직후 안동파출소원이 탈취한 원주진위대장 金德濟의 밀서에는 일본병의 통로를 막기 위한 경부철도의 절단 계획이 실려 있고, 1907년 10월 20일에는 목포-전주간의 전선이 불통되었는데, 이는 영광 북방 부근에서 전선이 ‘폭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진중일지』 1907년 8월 13일자 및 동년 10월 20일자 참조).

28) 『진중일지』 1907년 11월 21일자에는, 황엽령 전투에서 의병을 刺殺한 川村특무조장 등의 일본군 토벌대가 1907년 11월 20일 黃池里(충북 永春 남방 소백산 산록)에서 의병부대를 야습하여 ‘폭도 약 50명 刺殺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9) 강원도 의병의 이동 경로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대체로 경북지역으로의 이동이 전라남북도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진중일지』 1908년 3월 24일자에 의하면, 3월 21일 경주 인근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61명의 의병은 경상북도로 침입한 자라고 적고 있다.

위한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대해산 이후 초기에 일본군이 경기 및 강원지역의 의병에 대한 ‘토벌’ 공세에 집중한 것은 이 지역이 해산군인 봉기의 진원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서울과 인접해 있다고 하는 지정학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의병 측에서 ‘13도창의대진소’를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으로 일본군을 압박한 것도 일본군 ‘토벌 작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진의 주력은 민공호 등의 관동의병이었다는 점에서 연합의군의 공격과 강원도 의병세력의 진압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어쨌든 유생이나 농민 등이 주축을 이룬 일반인 중심의 의병부대와는 달리 해산군인들이 주축이 된 의병부대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sup>31)</sup> 일본군으로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무력화 시킬 필요성을 지녔던 것이다.

군대해산 직후 일본군의 군사 행동 가운데 특기할 점은 군대 해산 직전 일본 본토에서 증파된 일본군 보병 제47연대와 제14연대가 합동하여 여단사령부의 지휘 하에 서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작전구역을 확대해 나간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보병 제14연대의 『진중일지』에 의하면, 대전에 본부를 둔 47연대 병력으로는 경기

30) 신용하, 「전국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40~41쪽.

31) 『진중일지』 1909년 1월 1일자에는 해산군 출신으로 호남의병장 전해산의 部將이었던 鄭元執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장 鄭參尉는 경성 출신으로서 韓兵 6, 7명을 데리고 이에 투신하여 오로지 모든 군사적 교육을 담임하고, 전투, 행군, 駐軍의 각개 동작에서부터 야간에 있어서의 각 동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주밀하게 교육하고, 행군에 당해서는 스스로 前營司수 官이 되며, 전투에 있어서는 가장 용감히 동작함으로써 지금 부하 일반으로부터 海山과 동등한 존경을 받고 있다. 숙영할 때는 적괴가 숙박하는 촌락 주변 각 부락에 12區隊로써 일련의 前哨線을 펼치고, 그 각 구대에서는 또 다수의 밀정을 파견하여 각 부락을 수색하게 하는 등 注意가 매우 엄밀하다”.

강원지역의 의병을 압박하고, 일본군의 공세에 쫓겨 충북 및 경북지역으로 남하하는 병력에 대해서는 대구의 제14연대가 포위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군의 공세에 맞서 의병들은 1907년 11월 '13도연합의진'을 구성하고 서울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서울 공략 실패 이후 더욱 강화된 일본군의 토벌 공세로 인하여 민공호 부대 등 경기 및 강원지역의 의병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인근 지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표 4>에서 나타나는 일본군의 전투 기록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13도연합의진'의 서울 진공작전 실패 직후 1908년 3월부터 황해도와 경기도에서 일본군과 의병간의 전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의병부대를 비롯하여 연기우, 김수민, 이은찬 등 경기 및 인근 지역의 의병세력이 크게 증가한 것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1908년 2월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진 '13도연합의진'을 패퇴시킴으로써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의 의병 진압 작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 보병 제12여단의 남부수비관구 사령부는 수비지역을 경기·충청·강원 일원과 경상·전라 일원으로 분할하고 각각 제47연대와 제14연대의 담당 수비구로 설정하였다.<sup>32)</sup>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 일본군의 집중적인 '토벌' 결과 수많은 의병들이 학살되었고, 살아남은 의병세력의 일부는 황해도와 함경남도 등 북부지역으로 퇴각하였다. 또 다른 일부 세력들은 남진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토착 의병세력에 합류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특히 후자

<sup>32)</sup> 진중일지에 의하면 제14연대는 통상 대대별로 3개 수비구를 설치하였다. 각 수비구는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초기에는 대구, 경주, 광주에 수비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수비구체제는 대구·경주·진주 수비구에서 다시 대구·경주·광주 수비구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남원·광주·경주 수비구체제로 바뀌는 등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홍순권, 「한말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참조.



중 일부 세력은 이 시기 경상북도 북부 일원에서 강력한 항일투쟁을 벌인 이강년 부대에 합류하였다.<sup>33)</sup> 일본군의 남부수비관구의 분할은 일본군의 대규모 진압으로 재편된 의병세력의 저항에 대한 예비적 대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 (2) 호남지역 일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제14연대의 '토벌 작전'

남부수비관구를 제47연대와 제14연대의 수비구로 분할한 이후 일본군은 경기와 황해의 의병 진압에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격의 예봉을 지리산 인근의 산악과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에게로 돌렸다. 특히 이들은 190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해산군의 잔존 세력에 대한 진압에 병행하여 이들과 연합한 각 지역의 토착의병세력을 진압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전환하였다. 이제 특정 의병세력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토벌' 방식보다는 각급 부대별로 수비지역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중대 내지는 소대 규모의 각 지역수비대에게 해당 지역 의병에 대한 진압의 책임을 떠맡기었다.

이미 1908년 들어서 서울 이남 보병 제12여단의 남부수비관구 관찰 하에서의 의병 진압은 각 연대별로 수비지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즉, 일본군 보병 제12여단은 대전에 본부를 둔 제47연대로 하여금 기존의 경기, 강원, 충청도의 중부지역 의병세력의 진압에 힘쓰게 하는 한편, 대구에 본부를 둔 14연대에게는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던 경북과 경남, 그리고 전북과 전남 지역의 의병세력에 대한 진압을 진행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14연대는 이강년을 비

<sup>33)</sup>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 이강년 의병부대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의 의병항쟁과 이에 대한 일본군의 탄압에 대해서는 정제우,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권영배, 「대한제국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의병 탄압」, 『朝鮮史研究』 19, 2010 등을 참조할 것.

못하여 신돌석, 정환직 등 경북지역의 수많은 의병부대의 ‘토벌’을 감행하였고, 이어서 경남에서는 문태서, 김동신, 박동의, 이학로 등의 의병부대와 교전하였다. 호남에서는 이석용을 비롯하여 전해산, 조경환, 심남일, 안규홍 등의 의병부대가 주요한 ‘토벌’ 대상이었다.<sup>34)</sup>

1908년 하반기 이후 중부지역의 의병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데 반해서, 남부지역, 특히 경상북도 남부의 도 접경지역, 경상남도 서부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에서의 의병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경상도 일부 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의병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 지역의 토착의병세력이 군대 해산 이전부터 강고했던 데다, 일본군의 지속적인 ‘토벌’ 공세에 밀려 산악지대를 따라 남부와 서부로 이동해 간 해산군인들이 이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전해산, 안규홍 등의 호남의병부대에는 해산군 장교를 비롯하여 많은 해산군 출신의 병사들이 존재하였다.<sup>35)</sup> 호남지역의 의병활동이 고조기에 달한 것도 이러한 해산군 출신 의병들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표 3>~<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군 측이 직접 작성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1908년 하반기부터 약 1년간 호남지역은 전국 의병항쟁의 중심 무대가 되어 있었다.

의병들이 경북에서 경남으로, 다시 호남지역으로 거점을 옮기자 일본군의 작전 중심지역 또한 의병세력의 이동 방향을 따라 옮겨져 갔다. 결국 일본군은 호남지역 의병 진압을 한반도 남부지역 의병 토벌의 최종 단계로 여기고 이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켰다. 당시 주

<sup>34)</sup> 1907년 8월 이후 일본군 보병 제14연대가 행한 ‘의병 토벌’에 대해서는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및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에서 일단의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보병 제14연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의병 토벌’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심층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sup>35)</sup> 일본군 제14연대의 『진중일지』 1908년 1월 1일자 및 앞의 주 30) 등 참조.

력부대로 나선 키쿠치(菊池主展) 대좌가 이끄는 일본군 보병 제14연대는 수차례에 걸쳐 지리산 일대의 영·호남의병에 대한 대규모 ‘토벌’을 감행하였다.<sup>36)</sup> 특히 일본군 보병 제14연대는 본국으로 철수하기 직전인 1909년 2월부터 남원과 광주에 각각 대대본부를 설치하여 연대병력의 2/3로 하여금 호남지역을 수비케 하여 호남의병을 압박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토벌작전’을 통해서 호남의병의 진멸을 꾀하였던 것이다.

호남지역 의병 진압에는 일본군 수비대만 동원된 것이 아니다. 본국으로부터 증파된 헌병대, 기병대 대대가 토벌 수색작전에 합세하였고,<sup>37)</sup> 각지 주재소의 경찰병력 또한 상시적으로 동원되었다. 또 의병 수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 병력과 헌병대, 수비대 병력이 공동으로 구성된 ‘합동토벌대’가 편성되어 지속적인 수색 및 토벌 활동을 벌였다. 물론 이러한 토벌대에는 반드시 통역과 밀정, 그리고 헌병보조원이 동행하였다.<sup>38)</sup>

일본군 보병 제14연대는 1909년 5월까지 호남지역 ‘의병 토벌’ 임무를 수행하다가 1909년 6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임시한국파견대’와 임무를 교대한다. 대규모의 병력 동원과 보다 교활해진 다양한 방법

36) 진중일지에 의하면, 일본군 보병 제14연대는 1908년 2월 연대장이 지휘하는 대규모 ‘지리산토벌대’를 편성하여 호남의병의 진압에 나선 이래 1909년 5월 본국으로 철수하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의병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37) 군대해산 이후 의병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자 1907년 9월 일본은 본토로부터 임시파견기병대(기병 제1, 제2여단으로 임시 편성한 4개 중대, 대장 소좌 轟多(信太郎)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병대는 10월 8-10일 인천에 상륙하여 일부는 황태자의 의장 및 인천-경성간의 경비 임무를 맡고, 이후 2개 중대(제2중대, 4중대)를 중부수비관구에 증강 배치하고, 나머지는 남부수비관구에 배속시켜, 그중 본부와 제1중대(1소대 결)는 충청남도 조치원 주둔시켜 보병 제47연대의 예하로 편입시키고, 제3중대는 전주에 주둔시켜 제14연대의 예하에 편입시켰다. 『조선주차군역사』, 105-106쪽 참조.

38) 헌병보조원 등의 반(反) 의병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병들의 격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례로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정월 18일자(음력)에 수록된 「본 고을 反黨에게 보내는 격문」 참조.

의 수색과 토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제14연대의 호남의병 토벌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년 이상에 걸친 일제의 집요한 ‘토벌’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주요 의병장인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이학사(이석용), 문태서 등이 모두 건재하였다.

일본군은 마침내 ‘임시한국파견대’를 파견하여 호남지역의 의병 진압을 위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였다.<sup>39)</sup> 그것이 바로 1909년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전개된 ‘남한대토벌’이었다. 남한대토벌을 위해서 호남지역에 투입된 임시한국파견대는 1개 여단, 즉 2개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본군 제14연대가 본국 귀환 직전 총 3개 대대 중 1개 대대는 경주에 대대본부를 설치하여 경남·북 일원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2개 대대는 각각 광주와 남원에 각각 대대본부를 설치하여 호남지역 의병 진압에 동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의 병력 증강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이처럼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의병을 ‘토벌’한 결과, 일본군은 420여명의 의병을 학살하고, 안규홍 등 주요 의병장 26명을 체포하였다. 학살된 의병 가운데는 임창모 등과 같은 의병장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1)</sup>

남한대토벌 이후 의병투쟁은 점차 쇠퇴해 갔다. 근거지를 상실한 채 살아남은 의병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잠복하였다. 남한대토벌 이후 의병투쟁의 중심지는 일시 황해도 지역으로 옮겨졌고, 국내 각지에서 산발적인 저항이 지속되었으나 국내의 의병투쟁은 전반

39) 『조선주차군역사』, 116~118쪽 등 참조.

40) 이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36쪽 참조.

41) 홍순권, 『한말호남지역의병연구』, 1994, 162쪽. 당시 ‘남한대토벌’의 결과에 대한 기록은 기록의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임시한국파견대 사령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의병 사망자 중 현병대와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47명과 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한대토벌 기간 중의 의병 학살의 대부분은 ‘임시한국파견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sup>42)</sup> 1910년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의병 투쟁 거점은 국내가 아닌 만주 등지의 해외로 옮겨갔으며, 의병들은 새로운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독립군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3. 의병의 대응 전술과 변화 과정

#### 1) 무기의 수집과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면서 의병들에게 우선 당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기의 획득과 군수의 확보였다. 의병전쟁 기간 전 시기를 통해서 의병부대의 주화기는 말할 것도 없이 구식무기인 화승총이었다. 특히 군대해산 이전 거의 모든 의병들의 무기는 화승총이었으며,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의 합류로 이른바 ‘양총’이라고 통칭되던 신식무기가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양총이 의병부대의 주화기는 되지 못하였다. 아래의 <사례 1> · <사례 2>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원주 진위대 제5대대장 洪祐馨은 군부대신의 명에 따라 병졸 2명과 상경 도중 지난 3일 정오 砥平 南里川에서 돌연 폭도에게 그 轎를 빼앗기고 추과 함께 지평군아로 拘引되었는데, 밤이 되어 간수자의 틈을 타 탈주할 수 있었다고. 그 폭도 등은 지평군 북면 부근에 인

<sup>42)</sup> 일본군의 ‘남한대토벌’로 이후 호남의병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의병 활동이 크게 약화된 이후에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황해도 의병도 1911년 9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이르는 약 1달여 기간에 걸친 일본군의 ‘대토벌’로 큰 희생을 치른 이후는 점차 퇴조해 갔다. 이 시기 황해도 의병의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정제우, 『한말 황해도지역 의병의 항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참조.

원 약 백명이며, 신식총 약 25, 기타의 엽총을 가지고, 다수의 탄약을 휴대하여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또 무기를 가진 약 2백의 폭도는 3일 정오경 지평군 분파소를 습격하여 그 순검은 간신히 산중으로 피난했지만, 계복, 검 등은 탈취 당했다고.<sup>43)</sup>

〈사례 2〉: 「永川수비제11중대 中馬少尉 보고의 요지」(11월 5일, 軍威에서)

當分派所 보조원의 말에 의하면 鄭寬汝의 父가 率하는 일단 백여 명은 昨夜 義興분파소를 습격하여 동 분파소를 소각함. 賊은 3분의 1은 軍복을 착용하고 양총을 휴대하였으며, 나머지는 한복 화승총을 지닌 것 같다.<sup>44)</sup>

위의 〈사례 1〉에서 지적한 ‘폭도’는 그 정황으로 보아 원주진위대 해산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병부대로 보이며, 〈사례 2〉는 의병부대 내에 서로 복장을 달리한 양총으로 무장한 해산군과 화승총으로 무장한 민간 출신 의병이 혼재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의 합류 등으로 의병부대 내에 양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의병들은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 화승총 이외에 창이나 칼로 무장한 의병도 있었으니, 그들의 무장력은 일본군의 현대식 무기에 견주어 보면 사실상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당시 의병세력이 무기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엽총 등으로 무장한 포군(포수)을 의병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훈련된 병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sup>45)</sup> 이

43) 『진중일지』 1907년 8월 8일자.

44) 『진중일지』 1907년 11월 7일자.

45) 포군의 의병항쟁 참여는 전기의병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지만, 후기의병에서도 의병부대 내에서 포군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였다. 그 실례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15일자에 ‘정병 12명을 뽑아 영광, 함평 두 고을에 보내어 산포수를 모집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己酉 윤2월 19일자에는 ‘박장엽이 산포수 십 수 명을 뽑아 왔다’고 적고 있다.

밖에도 의병부대들은 민간으로부터 무기를 추심하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병 모집에도 적지 않은 군자금을 지출해야 했다.<sup>46)</sup> 그러나 무기 확보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관아 등의 무기고를 습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의병부대가 관아를 공격한 것은 소위 ‘土倭’로 지칭되던 친일관리의 처단 목적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무기의 획득이 주된 목표였다. 이처럼 의병들에 의한 무기 획득 투쟁이 도처에서 빈발하자, 일본군은 의병들의 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 지방 진위대 보유의 무기를 회수한 이후에도 지방 관아 무기고의 무기를 강제 회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sup>47)</sup>

각 지방의 진위대 병사들이 일제에 의한 강제적 군대해산에 반대하며 항일투쟁에 합류하면서, 의병부대에 유입된 주된 신식무기는 대한제국 군대의 화기인 러시아제 소총인 모젤 총이나, 일본제 무라타(村田) 소총<sup>48)</sup>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의 신식무기가 있었던 것 같다. 1908년 6월 26일 일본군 제14연대 소속의 누마구치(沼口)특무조장이 경상남도 양산 인근 수색 중 발견한 의병이 은닉한 양총(軍銃)은 스나이더(スナイドル)형 2정, 모젤(モーゼル)형 1정, 마루오니(マルヲニー)형 1정, 엔필드(エンピル) 2정 기타 1정으로 매우 다양하였다.<sup>49)</sup> 또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투쟁 중 거창수비대에 의

46)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윤2월 22일. “임장택이 모집한 군사 1명이 도망했는데, 이미 주어진 돈만 전후 40냥이다.”

47) 보병 제14연대의 『진중일지』에 의하면, 일본군은 각 지방 관아의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서 ‘병기정리에 관한 훈령 및 명령’을 발하여 각 지방에 ‘병기정리위원’을 파견하였다. 『진중일지』 1907년 10월 18일자 및 동년 11월 6일자 기사 등 참조.

48) 1880년 村田經芳이 개발하였다고 하여 무라타 소총으로 명명된 이 총은 이후 여러 차례 개량되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무기-스나이더 소총과 무라타 소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261~263쪽 참조.

49) 『진중일지』 1908년 6월 30일자 보고. 여기서 언급된 스나이더(Snider) 소총은 영국제

해 포로 잡힌 유중환 의병부대로부터 일본군이 노획한 무기 가운데는 레싱톤(レシントン)식 양총 1정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0)</sup> 이처럼 의병들이 소지한 양식 총의 종류가 다양했던 것은 구 대한제국 군대의 무기체계가 그만큼 복잡하였기 때문이다.<sup>51)</sup> 따라서 해산군인이 중심이 되었거나 이들과 결합한 의병부대들의 경우 구식 무기인 화승총 등으로 무장한 일반 의병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화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기는 하나, 이들조차 화약의 구입이나 무기의 수리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의병의 경우는 당시 일본군이 소지하던 기병총이나 30年式 무라타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군 또는 경찰을 공격하여 노획한 것들이었다.<sup>52)</sup> 반면 의병들이 소지했던 러시아제 모젤총은 대부분 해산군에 의해 유입된 구한국 군대의 화기였다.<sup>53)</sup>

---

엔필드(Enfield) 소총을 개량하여 만든 후장식 단발 소총으로 1894년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하다. 박맹수, 위의 글, 259~260쪽 참조. 원문의 ‘엔필드’는 Enfield의 일본어식 표기로 보인다.

50) 『진중일지』 1909년 5월 5일자.

51) 대한제국 군대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158~167쪽 참조.

52) 30년식 무라타총은 明治30년(1897)에 개량된 보병총으로 당시 일본군 토벌대의 주요 화기이다. 『진중일지』 1909년 1월 20일자에 수록된 「1월 10일 제5중대 山田隊 云水洞 전투상보」에 의하면 일본군 토벌대는 조경환 의병부대로 추정되는 의병 약 50명과의 전투에서 30년식 보병총 1정과 기병총 1정을 노획하였는데, 그 중 30년식 보병총(총번 115272)은 1908년 2월 1일 무등산에서 전사한 일본군 林周助의 총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전해산 의병부대의 경우, 『진중일지』 1909년 1월 1일자에 수록된 전투보고에 의하면, 일본군 수비대가 파악한 동 부대의 총기 소지 현황은 30년식 총 3, 블랑포(권총식 화승총) 1, 개조화승총 100, 韓兵銃 2, 千步銃(砲) 26, 2연발총 1로 나타나 있다. 『진중일지』 1908년 12월 1일자에 수록된 또 다른 보고서에는 전해산 의병부대는 30년식 보병총을 포함하여 군총 약 4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일본군의 정찰보고에 의하면, 호남의병인 안구홍 의병부대도 30년식 총(무라타총) 30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진중일지』 1909년 6월 4일자 참조).

53) 이러한 사실은 『진중일지』의 여러 기록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진중일지』 1907년 10월 8일자에 실린 경무고문부의 통보에 의하면, 동년 10월 2일 任實郡 上京面 일어학교를 습격한 ‘폭도’는 전부 모젤총을 휴대하였다고 한다. 『진중일지』 1907년 12월 16일자에 수록된 「12월 9일 제4중대 川村小隊 黃葉峯 부근 전투보고」



군대의 강제 해산에 저항하던 해산군은 초반에 일본군에 의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에게서 의병 측으로의 무기 공급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일본 군·경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의병들은 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하였다. 특히 일본군의 현대식 무기에 의해 큰 희생을 치른 의병들은 외국으로부터 신식무기의 구입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제의 감시로 인해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sup>54)</sup> 또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지역의 선교사에게 접근한 경우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sup>55)</sup>

의병들은 자체적으로 병기를 개량하여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려고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전쟁 기간 중 의병들은 화승총을 개량한 ‘천보총’의 구입을 위해 애썼다.<sup>56)</sup>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진압과 수색 작전으로 인하여 의병들의 무장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기관총을 비롯한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비하면,<sup>57)</sup> 의병들의 무장력은 절대적으

---

에 의하면, 李明頭가 지휘하는 ‘폭도’ 중에는 韓兵 약 20명이 있는데, 이들이 소지한 ‘모젤 총은 원주 황성 부근의 진위대의 것이고, 화승총과 화약은 그 부근에서 약탈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54) 예컨대, 『진중일지』 1907년 12월 16일자에는 황해도에서 청국으로부터 총기 밀수를 기도한 ‘폭도’가 체포되었다는 「12월 13일부 警秘第174號 松井警務局長의 통보」가 수록되어 있다.

55)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8일자(추정) 기사 참조.

56) 천보총은 18세기 화승총을 개량한 것인데, 사정거리가 약 천보쯤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중일지』에서 일본군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전해산부대의 경우 천보총 26정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해산진중일기』 戊申 9월 20일자 및 9월 29일자에도 천보총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전해산부대는 9월 29일 조경환 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쳐 승리한 ‘석문동 전투’에서도 천보총을 사용하고 있다.

57) 당시 일본군 ‘의병토벌대’의 무장 상태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142쪽 참조.

로 열세를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의병들의 무장 실태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의병 보유 무기의 종류 (단위: 정)

도별 종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전부 노국식총 소유	1													1
일부 흉기 소유				1			2	3	7			4	3	20
대부분 화승총 소유		13	1	6	3	6	10	6	8	1	1	24	4	83
전부 총기 소유		2	1		1	3	5	1	1	1		1	2	18
대부분 精良한 총 소유		1			1	2	3	1						8
반수 총기 소유		2	2	2	3	3	7	4	6	4	1	8	1	43
계	1	18	4	9	8	14	27	15	22	6	2	37	10	173

\* 출전: 상동.

\* 비고: 본 표는 1908년 1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한국주차헌병대'에서 체포한 의병들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위의 <표 6>을 보면 의병부대의 대수는 부대원 전원이 무장한 경우는 전체 173개 부대 중 19개 부대에 불과하고, 부대원의 반수나 일부만이 총기를 휴대한 경우도 63개 부대나 되었다. 대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 또는 전원이 화승총으로 무장한 경우가 많았고(83+18개 부대), 부대원의 다수가 양총 등 정량한 총을 보유한 경우는 겨우 9개 부대에 불과하였다. 조사된 의병부대 가운데 함북의 1개 의병부대만이 전원 러시아(露國)식 총(모젤 소총으로 추정 :

필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화승총이 의병부대의 주화기인 것은 전국 모든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 그나마 다수가精良한 총을 무장한 의병부대는 주로 강원과 경기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다수 해산군인이 중심이 된 의병부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호남의병의 경우 총기의 보유 상태는 타 지역의 의병에 비해 우수한 편이나, 그 역시 대다수의 의병은 화승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표 7>에서처럼 일본군 헌병대의 노획 무기 중 지역별 군용 총 노획 비율이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1909년 이후 호남지역에서의 해산군인의 활동과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7> 헌병대가 노획한 의병 무기 조사표 (단위: 정, 돈)

도별 종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군용총				1	21	14	13	10	3	10		16	4	92
잡총총		10	1	45	56	27	57	25	73	70	48	128	325	955
화포							5						7	12
도창류		2	1	10	12	24		3	14	24	6	15	51	182
탄약		10		23/ 1,200 돈	2,016	499/ 430 돈	608/8 0돈	114	40	140	370/ 25돈	22/ 320 돈	186/ 4,500 돈	4,028/ 6,555 돈
화약				500 돈	20돈	1,287 돈	150 돈	50돈	160 돈	580 돈	6,000 돈	1,276 돈	7,930 돈	17,953 돈

\* 출전: 상동.

\* 비고: 본표는 1909년 1월부터 1909년 11월까지 '한국주차헌병대'에서 노획한 무기를 개수로 표시한 것임.

<표 8> 탄약 보충 방법 (단위: 건)

도별 종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촌민에게 제조 강제						1	1	1				1	1	5

업사로부 터 탈취		2				1	1		1				2	7
스스로 제조		2	1		1	3	7	3	2	1	1	6	5	32
행상인으 로부터 購求	1	8	3	3	3	3	1	1		2				25
농민으로 부터 징발		5		1		1	1					4		12
상세히 알 수 없음		3	1	2	6	1	11	8	16	3	1	16	1	69
계	1	20	5	6	10	10	22	13	19	6	2	27	9	150

\* 출처: 상동.

\* 비고: 본표는 1908년 1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한국주차헌병대'가 체포한 의병을 取調한 내용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표 8〉을 보면 의병들의 탄약 보충 방법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의병들 스스로가 제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밖에 행상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8)</sup> 행상인으로부터의 구매는 주로 함남 등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영호남의 경우에는 사례가 없다. 북부지방에서의 총기 구매가 집중적으로 나타는 것은 연해주 등 해외로부터의 무기 반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59)</sup> 또 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설사 신식무기인 양총을 보유했다고 해도 탄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양총의 탄약 구입 문제가 의병투쟁의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8) 『전해산진중일기』에서도 탄약 보충의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 민간에서 직접 구득하는 경우도 있고, 재료를 사서 탄환을 제조하는 사례도 나온다(같은 책, 戊申 10월 9일).

59) 북부지역 의병들의 연해주로부터의 무기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북지역의 경성의병을 중심으로 검토한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256~258쪽 참조.

## 2) 군수의 조달

초창기 의병부대의 창의는 주로 지방의 명망 유생들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지주로서 상당한 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원을 염출하여 창의에 필요한 군수도 조달하였다.<sup>60)</sup>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군수를 조달하면서 장기적인 투쟁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외부로부터 군수를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면장이나 군수 등 지방 관리들로부터 이른바 세금인 ‘공전’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일본이 국가 재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의병들의 공전 징수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재정을 되찾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의병들이 지방관이나 면장이나 동장에게 군수전의 징발을 명령하는 격문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관이나 면장, 동장 등이 자발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는 이들을 공격하여 강제 징수하기도 하였고, 또 공전을 운반하는 공전영수원이나 우편체송인을 공격하여 빼앗기도 하였다.<sup>61)</sup>

의병들은 공전을 환수하는 외에 민간에서 군수를 조달하기도 하였다.<sup>62)</sup> 이러한 경우는 주로 지주나 부호들에게 편지 또는 격문을 띄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때 자발적으로 의병에 협조하여 군수품

<sup>60)</sup> 호남지역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때, 奇參衍, 梁會一, 吳聖述 등의 擧義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236~237쪽 참조.

<sup>61)</sup>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169~193쪽 참조.

<sup>62)</sup> 의병 군수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의병들이 작성한 격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 권영배, 「격문류를 통해 본 구한말 의병항쟁의 성격」(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5, 189쪽 참조할 수 있다. 권영배의 분석에 의하면 군대해산 이후 후기의 병의 격문 146건 중 군수품 수거를 위한 것이 36건(2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해산진중일기』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전해산진중일기』, 戊申 8월 21일(추정)에 실린 ‘三加面長과 本洞 洞長에게 명령함’이라는 격문에서 군수전 납부에 면장과 동장이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복종하지 않을 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나 군수전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병들의 강압에 못 이겨 군수전을 내놓기도 하였다.<sup>63)</sup> 물론 군수의 원활한 조달 없이는 의병 활동의 지속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마을마다 밀정을 파견하여 의병에 협조하여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자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엄하게 다스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의병들의 군수 조달 활동을 강도 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호구조사 등을 통해서 의병들을 주민들로부터 분리하려 애썼다.<sup>64)</sup> 이밖에 일본군이 의병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사찰을 소각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도 의병들의 군수조달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sup>65)</sup>

의병들의 군수 조달은 주민과의 밀접한 유대가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병의 지역적 기반이나 연고가 매우 중요하였다. 전해산 등 호남지역의 의병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본군경의 지속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장기간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주민과 밀착된 강한 지역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해산진중일기』는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3) 훈련과 전술

의병들의 구성은 일부 유생과 다수의 농민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았을 리가 만무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의병부대들은 애초에 전투부대로서 제구실을 하

63)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16일자에는 부호로부터 군수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 族人을 감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64) 『진중일기』 1908년 5월 28일자 「訓示」 등 참조.

65) 이 점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146~148 참조.

지 못하였다. 다만, 포군이 주요 전투력이었던 유인석 부대의 경우는 나름대로 충기를 다룰 수 있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전투다운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 물론 초기 의병부대들도 나름대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실시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조차 근대식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의병부대의 부대편성이 선봉, 중군, 후군 등 전통적 부대 편성을 한 것으로 보아 군사훈련 또한 그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sup>66)</sup>

그러나 1907년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인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기존의 유생 중심의 의병부대에서도 군사 훈련이나 부대 편제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전해산 진중일기』에는 대한제국 장교 출신인 정원집이 군사 훈련을 맡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교감으로 임명된 선달 김창순도 그 정황으로 보아 정원집과 함께 편입해 들어온 해산군인으로 짐작된다.<sup>67)</sup> 전해산은 스스로 호남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의병부대들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나도 정원집과 더불어 수십여 진을 규합하여 산과 바다로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여 정원집을 비롯한 해산군인이 의병부대의 빼놓을 수 없는 무장력임을 밝히고 있다.<sup>68)</sup> 전해산 의병부대가 기본적으로 선봉, 중군, 후군 등의 전통적 군대 편제를 따르면서도, 실제 병력의 이동과 활동은 분대 규모의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식군대 편제에 익숙한 해산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sup>69)</sup> 일본군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도 이러한 방식

66) 호남지역 의병부대의 부대 편성에 대해서는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243~254쪽 참조.

67)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12일자에는 金昌順이 李鳳來, 鄭元執과 함께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68)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8일자. 관련 내용의 전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요즘 군의 형세가 차츰 떨치고 의로운 깃발이 날로 날리어, 金竹峰·金痴齋는 산고을에 출입하고, 李淳植·朴道京은 바다 연변에서 연락하고, 愼華川·曹大川은 서북에서 경영하고, 沈南一·安德峰은 동남에서 치달리고, 나도 정원집과 더불어 수십여 진을 규합하여 산과 바다로 횡행하고 있다.”

의 군대 편성과 운영이 잘 드러나 있다.<sup>70)</sup>

의병들의 활동과 전술에서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난다. 군대 해산 직후에는 대규모 부대 편제와 대규모의 군사 이동이 오히려 일본군과의 격전에서 많은 희생을 낳았다. 당시 일본군은 밀정 등의 정탐과 전신 등 근대적 통신수단으로 의병들의 동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던 데 반하여, 해산군인 중심의 의병부대들은 주민과의 연계가 끊긴 채 신속한 부대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8년 2월 '13도연합의진'의 서울 진공 실패 이후에는 의병들의 전술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8년 하반기 이후 해산군인과 결합한 호남지역 의병들은 소부대 중심의 유격전으로 일본군을 괴롭히며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전해산 의병부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적인 군사 지식을 갖춘 해산군인의 지도와 협력 하에 의병들은 分陣과 合陣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여건이 불리한 경우 일시 부대를 해산했다가 적당한 시기 다시 부대를 결성하여 싸우는 방식으로 화력의 면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가려 애썼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대해산 이후 제3기에 호남지역에서 의병항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지역 의병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세력에 비해 토착적 기반이 강하였다. 주민들과 의병들의 관계가 밀접하였기 때문에 밀정 등을 통한 일제의 정보 수집 활동이 그다지 큰 효과를 보

69) 『전해산진중일기』, 己酉 2월 11일자에는 제4초장 魯連叔이 등장한다. 이로써 판단하건대, 전해산의병부대의 기초 단위는 哨이고, 중군 등은 적어도 4초 이상의 병력을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70) 『진중일지』 1909년 1월 1일자의 보고 기록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전해산은 부하를 長 이하 10 내지 20으로 이루어진 12區隊로 편성하여 교묘히 이를 지휘하고, 各所에서 행동하도록 하고, 자신은 약 5,60명을 率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회를 잃지 않고 尙兵을 집결한다.”



지 못하였다. 오히려 주민들이 일본군의 움직임에 의병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의병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둘째, 이 시기 호남지역 의병부대는 토착의병세력과 해산군의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71)</sup> 토착의병들이 정보전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해산군인들은 무기와 전술에서 상대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해산군인은 의병부대의 군사 훈련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양식총으로 무장하여 의병부대의 빈약한 전투력을 일부분 보완하였다. 게다가 해산군인의 경우 일본군과 대규모 접전에서 패배한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소부대 중심의 유격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1908년 들어서 호남지역에서는 의병투쟁의 전술적 변화와 지역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의병세력의 근거지 투쟁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일본군의 ‘토벌’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일본군이 중국에는 ‘한국임시파견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토벌작전’을 벌인 것도 기존의 수비대 병력만으로는 의병세력에 대한 전술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남한대토벌 작전에서 일본군은 한 지역에 대한 조밀한 부대 편성과 더불어 이른바 ‘攪拌的’ 방법을 사용하여 마을 단위의 수색과 토벌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이다.<sup>72)</sup>

71) 이 점에 대해서 신주백은 호남의병의 특징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일어난 주요 의병부대와 달리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라고 평가하였다.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 군·헌병·경찰의 탄압작전」, 233쪽 참조) 이러한 평가는 기존의 호남의병 연구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사료되지만, 호남의병에서 해산군(해산병)의 역할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다면, 해산군의 역할이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호남지역 의병에 해산 군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慎蒼宇, 「韓國軍人の抗日蜂起と韓國併合」, 56쪽에서 군 경력이 없는 호남의병장, 文泰洙(文泰瑞)를 하사 출신으로 잘못 정리한 것도 그 일례이다.

72) ‘교반적’ 방법은 적이 한정된 지역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포위하여 전후 좌우로 왕복

#### 4. 맺음말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종전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국부적인 군대 파견과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지배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군보다는 오히려 관군을 주된 상대로 하여 싸워야 했던 전기의병 때와는 달리 러일전쟁 이후의 의병세력은 이제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한반도에 이른바 ‘한국주차군’을 설치한 일제는 주차사단과 여단 규모의 임시 파견 병력을 중심으로 전국 요지에 수비대를 주둔시켜 지속적인 ‘의병 토벌’을 감행하였다. 특히 일본군은 1907년 7월 하순 본국으로부터 1개 여단 병력 규모의 수비대 병력을 증파하여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과 의병세력의 섬멸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8월부터 해산군과 의병들의 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도 토벌’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경기·강원 → 충청·경북 → 경남 → 전남·전북 등 한반도 중·남부지역을 시계방향으로 돌며 해산군과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함남 등 북부지역에서도 ‘의병 토벌’이 행해졌으나, 전반적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킨 곳은 중부와 남부지역이었다. 그만큼 중부와 남부지역에서의 의병세력의 저항이 강력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병세력은 군대해산 이후 약 1년간 일본군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

해가며 수색하고 기병적 수단으로 적을 속이는 전술 등을 말한다. (『조선폭도토벌지』, 792~793쪽). 이러한 기만적이고 농밀한 수색을 통한 의병 학살 경험은 일제강점기 만주지역 독립군과 항일유격대의 토벌과정에서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시기 일본군에 학살된 의병 수는 일제의 공식 통계상으로 12,592명에 이른다.<sup>73)</sup> 현대식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월등한 화력, 치밀한 정보전, 철도 등을 이용한 빠른 기동력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이러한 일본군에 대해서 수적 우세로만 대응하려 했던 의병들의 전략과 전술의 한계도 대량학살의 피해를 입게 된 이유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의병들의 이러한 전략·전술적 한계는 일본군의 공세에 밀린 해산군이 호남지역 등의 토착의병세력과 결합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과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대신 유격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군수를 확보하여 사실상 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력의 강화를 통해 적의 예봉을 피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면서 의병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양총 등 현대식 무기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해산군인의 지도로 병사의 훈련 또한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 군대해산 이후 호남 의병의 저항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군사적 진압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의병부대 내의 이러한 전술상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병들의 끈질긴 저항도 절대적으로 우세한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일본군 보병 제14연대만으로는 호남의병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1909년 6월 1개 여단 규모의 ‘한국임시파견대’를 본국으로부터 불러들여 동년 9월과 10월 약 2개월에 걸쳐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단행하여 호남지역 의병세력의 진멸을 꾀하였다. 일본군의 ‘남한대토벌’로 호남지역 의병세력이 사실상

73) 『조선폭도토벌지』, 823~829쪽. 이 수치는 1906년 5월부터 1911년 12월까지의 의병 사망자 17,779명의 약 70.8%에 해당한다.

무력화되면서 의병세력의 항일무장투쟁은 점차 퇴조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1910년대 들어서 황해도 등지에서 의병들의 의미 있는 항쟁이 일시 계속되었으나, 이후 많은 의병세력이 해외로 망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의병항쟁은 점차 해외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으로 계승 전환되어갔다.

- 접수일 : 2013. 7. 15 / 심사완료일 : 2013. 8. 2
- 주제어 : 의병 진압, 의병 전술, 한국주차군, 제14연대, 해산군인, 신식무기, 호남의병

## ❖ 참고문헌

- 金正明 편, 『朝鮮駐劄軍歷史』(영인본), 巖南堂書店, 1967.
- 全羅南道 警務課 編, 『全南暴徒史』, 1913(이일룡 역, 『秘錄 韓末全南義兵鬪爭史』, 1977).
- 『전해산진중일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1974 所收).
- 朝鮮駐劄軍司令部 편, 『朝鮮暴徒討伐誌』, 1913.
- 조선총독부 내부 경무국 편, 『暴徒に關する編冊』,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의병편』 8~19, 1990).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편, 『歩兵第14聯隊陣中日誌』 I・II・III(2010년 영인).
-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 국사편찬위원회 편, 『폭도토벌개황』(假題), 1997(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의 『千代田史料』 수집 자료).
- 권영배, 「격문류를 통해 본 구한말 의병항쟁의 성격」(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5.
- \_\_\_\_\_, 「대한제국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의병 탄압」, 『朝鮮史研究』 19, 2010.
- \_\_\_\_\_, 「대한제국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의병 탄압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제19집, 2010.
-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 \_\_\_\_\_,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2009.
- \_\_\_\_\_,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 松田利彦, 朝鮮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警察機構(1904~1910)」,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1993.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서태원, 「대한제국기 원주진위대 연구」, 『호서사학』 37, 2004.
- 신용하, 「홍범도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 \_\_\_\_\_, 「전국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 \_\_\_\_\_, 「민군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 군·헌병·경찰의 탄압작전」, 『역사교육』 87, 2003.

- 慎蒼宇, 「韓國軍人の抗日蜂起と'韓國併合」, 『'韓國併合'100年を問う』, 岩波書店, 2011.
- 이승희,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일본군 헌병대의 역할-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치안 구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일월서각, 1988.
- 정제우,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_\_\_\_\_, 「한말 황해도지역 의병의 항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 통감부 경무국 편, 『暴徒史編輯資料』, 1909.
-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학살」, 『제노사이드 연구』 3, 2008.
- \_\_\_\_\_, 「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군사연구』 131, 2011.
- \_\_\_\_\_, 『한말 호남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국문요약

## 한말 일본군의 의병 진압과 의병 전술의 변화 과정

홍 순 권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1895년 전기의병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재기한 이래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이후 10여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의병투쟁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말 의병운동의 전 기간 중에서도 일본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져 많은 의병 희생자가 발생한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의 후기의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07년 8월 군대 해산 이후 일본군에 의한 집중적인 의병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 일본군의 의병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대의 의병 진압과 이에 대응한 의병세력의 전략·전술적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의병 연구자들이 활용해왔던 일본 측 자료 외에 일본 방위성방위연구소 소장의 『千代田史料』에 포함된 한국주차군사령부의 보고 문건,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이하 『진중일지』로 약칭함) 등 일본군 측 자료와 호남의병장 전해산이 기록한 『전해산진중일기』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종전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국부적인 군대 파

견과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지배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군보다는 오히려 관군을 주된 상대로 하여 싸워야 했던 전기의병 때와는 달리 러일전쟁 이후의 의병세력은 이제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한반도에 이른바 ‘한국주차군’을 설치한 일제는 주차사단과 여단 규모의 임시 파견 병력을 중심으로 전국 요지에 수비대를 주둔시켜 지속적인 의병‘토벌’을 감행하였다. 특히 일본군은 1907년 7월 하순 본국으로부터 1개 여단 병력 규모의 수비대 병력을 증파하여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과 의병세력의 섬멸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8월부터 해산군과 의병들의 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도 토벌’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경기·강원→충청·경북→경남→전남·전북 등 한반도 중·남부지역을 시계방향으로 돌며 해산군과 의병에 대한 집중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함남 등 북부지역에서도 군사적 의병 ‘토벌’이 행해졌으나, 전반적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킨 것은 중부와 남부지역이었다. 그만큼 중부와 남부지역에서의 의병세력의 저항이 강력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병세력은 군대해산 이후 약 1년간 일본군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시기 일본군에 학살된 의병 수는 일제의 공식통계상으로 12,592명에 이른다. 현대식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월등한 화력, 치밀한 정보전, 철도 등을 이용한 빠른 기동력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이러한 일본군에 대해서 수적 우세로만 일거에 승산을 보려 했던 의병들의 전략·전술적 한계도 대량학살을 막지 못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의병들의 이러한 전략·전술적 한계는 일본군의 공세에 밀린 해



산군인들이 호남지역 등의 토착의병세력과 결합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되고 갔다. 의병들은 일본군과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대신 유격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군수를 확보하여 사실상 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력의 강화를 통해 적의 예봉을 피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강화하면서 의병전쟁을 장기전화 하였다. 비록 큰 성과는 없었으나, 양총 등 현대식 무기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해산군의 지도로 병사에게 근대적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군대해산 이후 호남의병의 저항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군사적 토벌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의병부대 내의 이러한 전술상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군 보병제14연대만으로는 호남의병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1909년 6월 1개 여단 규모의 ‘한국임시파견대’를 본국으로부터 불러들여 동년 9월과 10월 약 2개월에 걸친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단행하여 호남지역 의병세력의 진멸을 꾀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본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한 의병들의 저항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의 ‘남한대토벌’로 호남지역 의병세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의병세력의 항일무장투쟁은 점차 퇴조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1910년대 들어서 황해도 등지에서 의병들의 의미 있는 항쟁이 일시 계속되었으나, 이후 많은 의병세력이 해외로 망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의병항쟁은 점차 해외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으로 계승 전환되어갔다.

❁ 영문요약

## The Suppression of Japanese Army and the Tactical Changes of Righteous Army

Hong, Soon-Kwon

The 'Righteous army'(義兵) uprising at the first time in 1895 against the Japanese infringement of Korean sovereignty, 'the murder of Korean Queen', and 'the Royal decree', 'the Order of Cutting Hair'. It uprising again in 1904 against the Japanese violation of Korean territory before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Its anti-Japanese struggle continued about 10 years in Korean Peninsular since then. Many Righteous Army soldiers including patriotic militia were slaughtered by Japanese troops especially since the compulsory winding-up of the Korean Empire army in August, 1907.

This writing is aimed to comprehensively reconstruct the strategy and tactics of the Righteous troops against Japanese assaults and suppress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Honam province after the compulsory winding-up of the Korean Empire army. Here we are analysed the various materials which is posses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Defence Studies, Ministry of Defence including 'the Camp Journal of the 14th Infantry', the documents of Japanese stationary troops HQ in Korea, and 'the Jeon Hae-san's diary' during the war, so-called 'the Righteous Army War'.

The station of Japanese army in Korean peninsular since the Russo-Japanese War meant the all-side military domin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over Korean people. Therefore, the clash of both the militia

supported by Korean people and Japanese stationary troops was not avoidable.

The Japanese government dispatched military forces of a brigade including the 14th infantry regiment to Korea in July, 1907 which were placed in the southern provinces of Korea peninsular in order to suppress the 'local militia'. The Japanese garrisons in Korea continued to exercise the big military operations to suppress and slaughter them in the middle and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since August, 1907. They operated against the militia including the dispersed Korean soldiers in serial order clockwise first in Kyonggi & Kangwon provinces, second in north Chungchong & north Kyoungsang provinces, third in south Kyoungsang province, and last in Honam(Jeolla) province. They operated partly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Hamkyoung' province, but importantly concentrated upon the entire suppression over the militia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ey considered the southern militia as the obstacles of the colonial domination over Korean peninsular by Japanese imperialism.

A large number of Korean people including the militia of 'the Righteous Army' were slaughtered for the first one year since the compulsory winding-up of the Korean Empire army in August, 1907. The total number of the slaughtered militia is 12,597 persons, which was recorded in the remained document of the Japanese stationary army in Korea. The factors of the victory of Japanese troops were their modern weapons, the better-informed system and intelligence activities, the better transportation system like the railroad. But the wrong strategies or tactics of the 'righteous militia' also was one of the reasons their great defeat.

The Honam militia who realized the limit of the earlier strategy and tactics of the militia tried to find out the new way for a long time resistance. The compulsorily dispersed soldiers joined the local militia in Honam province,

They avoided the large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troops, and developed the guerilla attacks. They tried to collect the military supplies through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obtained the relatively safe base camp with their assistances. They also promoted the information gathering against the enemies. They tried to obtain the modern & better developed weapons by all means, and were train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ex-soldiers of the Korea Empire.

Honam militia resisted for two years in spite of the strong and non-stop suppression of Japanese troops. After all,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dispatch the infantry brigade from Japan to Honam province, Korea in May, 1909 in order to suppress entirely the Honam militia, and planed a finely worked-out, so-called 'the great operation for Honam suppression' in September & October, 1909. Finally the Honam militia were suppressed. That meant the downturn of the Righteous Army War as one of Korean nationalist movements since the Russo-Japanese War. But the Righteous Army succeed to the struggle of the Korean independent Army against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efore August 15, in 1945.

Key words : 'Righteous Army', Japanese Stationary Army(troops) in Korea, the 14th Infantry Regiment, Modern Weapons, Honam Militia, Dispersed Soldiers, the Suppression of Japanese Troops.